

## 신명기 결정 연구 개요

### 표어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백성을  
그리스도의 예표인 좋은 땅으로 인도하셨고,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좋은 땅으로 가는 노정에서  
그분의 백성에게 공급하셨는데,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시다.  
신명기에 있는 모든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이며, 그분은 지금 우리가  
우리의 생명과 생명 공급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하나님의 통치는 의로우시고 거룩하시며  
신실하시고 다정하시며 사랑이 많으시고  
동정이 가득하신 하나님의 통치적인 행정이다.

우리가 좋은 땅의 실제이신 그리스도와 실지적으로 연결되어  
그분의 풍성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길은 계속 우리에게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고 그분의 돌봄의 대상이 되게 한다.

좋은 땅을 유업으로 받고 좋은 땅 안에서 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통치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복종하며 하나님의 부드러운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산다.

교회의 입구에는 십자가가 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모이려면 반드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론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든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며,  
그리스도만을 높이기 위해 십자가를 체험해야 한다.  
그럴 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표현과 하나(oneness)의 유일한 증거를 위해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실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그리스도 안의 믿는 이들은  
생명의 원칙에 따라 살고  
그리스도인 생활과 교회생활에서  
모든 것이 주님의 축복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생명을 선택하고 축복을 받는다.

## 신명기의 내재적인 의미 — 그리스도에 관한 책

성경: 신 30:11-14, 롬 10:6-9, 신 8:3, 마 4:4, 시 119:1-2, 9, 신 27:1-8

### I. '신명기'는 율법에 대한 결론의 말씀이며, 성경 중에서 모세가 기록한 처음 다섯 권의 책인 모세오경에 대한 포괄적인 결론을 제시하는 책이다.

A.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을 뜻하는 말이므로 신성한 율법에 관하여 다시 말하는 것, 반복하여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B. 율법은 모세가 팔십 세였을 때 처음으로 그를 통해 주어졌다(출 7:7). 사십 년이 지나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첫 세대가 다 죽고 난 후에, 모세는 다시 이스라엘 자손에게 율법에 관하여 말했는데, 이번에는 좋은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준비가 된 그다음 세대에게 들려주었다(신 2:14, 8:6-10).

1.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완전히 차지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불신의 악한 마음을 갖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 신 1:25-26, 28, 35-39, 9:23, 히 3:12, 16-19, 4:2, 6, 11:1, 비고 고후 4:13, 갈 3:2, 5, 롬 10:17, 행 6:5상, 민 13:25-33, 14:4-10, 32:11-12, 수 14:6-12.

2.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완전히 차지하려면, 우리는 불평하는 것(불만족스러워서 은밀히 투덜거리고 불만을 토하고 푸념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 고전 10:5-6, 10-11, 신 1:27, 민 14:1-4, 시 106:25, 빌 2:14.

3.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완전히 차지하려면, 그 땅에서 '오래 사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오래 살다'에 대한 히브리어 단어는 '관습의 영향력 혹은 한곳에 오래 거주한 데서 생긴 영적 신선함의 상실과 원래 느낌의 무더짐'을 암시한다 — 신 4:25, 계 3:15-22, 신 34:7.

C. 그다음 세대의 대부분은 시나이산에서 주어진 십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들어 보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율법을 다시 말해 주고 다시 들려주도록 부담을 주셨다. 이렇게 다시 말하는 것은 오랜 방황 후에 이스라엘 자손의 새로운 세대에게 주어진 새로워진 훈련이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좋은 땅에 들어가 그 땅을 그들의 소유로 상속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 출 3:8, 골 1:12, 2:6-7.

### II. 이 두 세대는 문자적인 의미로 해석되어야 할 뿐 아니라 예표적인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첫째 세대는 우리의 옛사람을 예표하고, 둘째 세대는 우리의 새사람을 예표한다.

## 신명기

### 메시지 1 (계속)

- A.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쓴 의도는 성도들이 옛사람의 소멸과 새사람의 성장을 체험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었다 — 고전 3:1과 각주 1, 6-9, 5:7, 10:3-13.
- B. 고린도후서에서 좋은 땅은, 우리의 누림을 위해 신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신,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 자신을 예표한다 — 고후 1:12, 4:15, 6:1, 8:1, 9, 9:8, 14, 12:9, 13:14.
- C. 우리는 생명이 자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완전히 차지하고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생명이 자라는 것은 옛 세대를 제거하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새로워짐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다. 변화는 옛사람이 소멸되는 것과 새사람이 성장하는 것이다.
- D.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의 옛사람(겉사람)이 소모되고 우리의 새사람(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다 — 고후 4:16.
- E. 변화는 내적인 신진대사의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 존재, 특별히 우리 혼의 각 부분 전체에 그분의 신성한 생명과 본성을 확장하시면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풍성을 우리의 새로운 요소로 우리 존재 안으로 가져오시고, 우리의 타고난 낡은 요소가 점차적으로 배출되게 하시려고 일하신다 — 고후 3:18, 롬 12:2.
- F. 주님의 공훈과 은혜로, 우리가 주님의 회복 안으로 들어온 이후로 우리 안에 신진대사적인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생명 안에서 성장하고 변화되도록 새로워지는 체험인데, 하나님의 건축물과 왕국을 위해 우리의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데로 우리를 이끌기 위한 것이다.

III. 로마서 10장 6절부터 9절까지에서 바울은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에서 모세가 한 말을 그리스도께 적용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신 30:11, 14)이 바로 말씀이신 그리스도(요 1:1, 계 19:13)라는 것을 보여 준다. 그분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호흡으로서(비교 신 8:3, 딤후 3:16상),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에 계시는 분이시다.

- A. 신명기 30장 12절에서 ‘그것’은 11절의 ‘계명’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계명은 말씀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시다.
  - 1. 신명기 30장 13절에서는 바다를 언급하고 있지만, 로마서 10장 7절에서 바울은 무저갱을 언급한다. 무저갱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 부활하시기 전에 방문하신 장소를 가리키는데, 이곳은 바로 음부, 땅 아래 있는 부분인 죽음의 영역이다 — 행 2:24, 27, 엡 4:9.

## 결정 연구 개요

### 메시지 1 (계속)

2.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겠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육체 되심을 가리키고,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모셔 올리겠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킨다.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오심으로써 육체가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음부(무저갱)에서 올라오심으로써 부활하셨다 — 롬 10:6-7.
  3.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와 로마서 10장 6절부터 9절까지를 함께 둘 때,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완전한 그림을 갖는다. 이 그림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육체 되신 것,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되신 것, 무저갱으로 가신 것,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신 것, 부활 안에서 호흡 곧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것을 본다. 이것이 우리가 신명기 전체에서 그리스도가 계시된다고 말하는 근거이다 — 요 20:22, 고전 15:45하.
  4.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살아 있는 말씀, 곧 그 영(엡 6:17)이 되셔서, 우리가 우리 존재 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공기, 곧 호흡과 똑같이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에 계시다. 그분은 가까이 계시며, 따라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분을 우리의 생명 공급과 힘과 모든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언제든지 누릴 수 있는 분이시다 — 롬 10:12-13.
  5.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육체가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 자신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는데, 그분은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쉬신 호흡이시고,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다시 말하는 율법의 말씀—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포함함—이시다. 신명기에서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판결’과 같은 표현들은 그리스도와 동의어이다.
- B. 신명기 8장 3절은 “이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대가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라고 말한다. ‘모든 것’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모든 말씀’으로 대치되었는데,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가리킨다.
1. 신명기에서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규례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 전체 곧 총체는 바로 그리스도이다(요 1:1, 14). 그러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은 신성한 호흡의 체현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2. 신명기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 것은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체현되어 있다. 신명기를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쉬신 모든 것, 곧 하나님께서 밖으로 호흡해 내신 모든 것을 들이마셔야 한다. 신명기에 있는 신성한 호흡을 들이마심으로써 우리는 신성한 호흡의 체

## 신명기

### 메시지 1 (계속)

현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호흡을 더 많이 받아들일수록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많이 누리게 될 것이다.

3. 이스라엘 자손은 계명과 율례와 규례들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를 지켜야 한다. 그리스도를 취하고 그리스도를 지키고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음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을 누리며 그분을 살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지키며,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입으며, 그리스도를 써야 한다 — 신 6:1, 5-9, 빌 3:9, 1:19-21상.
4.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백성을 그리스도의 예표인 좋은 땅으로 인도하셨고,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좋은 땅으로 가는 노정에서 그분의 백성에게 공급하셨는데,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시다. 신명기에 있는 모든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이며, 그분은 지금 우리가 우리의 생명과 생명 공급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 시 119:1과 영어 회복역 각주 1, 119:9과 영어 회복역 각주 1.
5. 성경은 하나님께서 호흡해 내신 것, 곧 숨을 내쉬신 것이기 때문에(딤후 3:16), 우리는 온갖 기도로(엡 6:17-18)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성경을 들이마셔야 한다. 우리는 성경을 가르치는 동안에 사람들 안으로 하나님을 계속 내쉬어야 한다.

**IV. 율법의 각 방면, 곧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와 판결을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내쉬신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율법을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으로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 영은 하나님의 온 존재의 실재이시다(요 16:13, 요일 5:6). 따라서 그 영이신 그리스도는 율법의 실재이시다(요 6:63, 엡 6:17-18, 고전 15:45 하, 시 119:9과 영어 회복역 각주 1).**

- A.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인 율법은 살아 계신 하나님을, 그분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공급하는 기능을 한다 — 시 119:2, 88.
- B.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인 율법은 생명과 빛이신 하나님 자신을, 율법을 사랑하는 이들 안으로 분배하는 기능을 한다 — 시 119:25, 50, 107, 116, 130, 154.
- C.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인 율법은 사람의 혼을 소생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기능을 한다 — 시 19:7-8.
- D.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인 율법은 구원을 가져다주는 기능을 한다 — 시 119:41, 170.
- E.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인 율법은 우리를 강하게 하고(시 119:28), 위로하며(76절), 보양하는(103절) 기능을 한다.

## 결정 연구 개요

### 메시지 1 (계속)

- F.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인 율법은 우리를 떠받치고, 안전하게 지켜 주며, 소망을 갖게 하는 기능을 한다 — 시 119:116-117, 49.
  - G.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인 율법은 우리로 우리의 뉘이신 하나님을 누리게 한다 — 시 119:57.
  - H.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인 율법은 우리로 하나님의 얼굴(시 119:58)과 그분의 얼굴의 빛 비춤(135절)을 누리게 한다.
  - I.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인 율법은 우리로 우리의 은신처와 방패(시 119:114)이신 하나님을 누리게 하며,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선대하심(175, 65절)을 누리게 한다.
  - J.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인 율법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는 기능을 한다 — 시 119:98-99.
  - K.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인 율법은 우리에게 합당한 분별력과 지식을 주는 기능을 한다 — 시 119:66.
  - L.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인 율법은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고, 모든 악한 길에서 우리를 지켜 준다 — 시 119:11, 101.
  - M.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인 율법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고(시 119:165), 우리의 발걸음을 안정되게 하며, 우리로 죄악을 이기게 해 준다 — 시 119:133.
  - N.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낮추며 율법을 그분의 살아 있는 말씀으로 여겨 그것을 통해 우리가 그분을 접촉하고 그분 안에 거한다면, 율법은 우리에게 신성한 생명과 실질을 전달하는 하나의 통로가 되어 우리를 공급하고 양육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실질을 주입받은 우리는 생명과 본성과 표현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것이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며 그분의 율법과 일치하는 삶을 살 것이다 — 롬 8:4, 빌 1:21상.
- V. 신명기 27장 1절부터 8절까지에 묘사된, 좋은 땅 어귀의 광경에는 돌 기념물과 제단과 제물들이 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 A. 돌 기념물 위에 기록된 율법은 하나님 자신을 묘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돌 기념물은 하나님의 살아 있는 묘사이시자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존재에 따라 백성에게 요구하시기 위하여 백성 앞에서 계신 것을 상징한다.
  - B. 하나님의 계명들을 새긴 돌들 바로 옆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제단이 있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예표적으로 그리스도를 그들의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고, 신성한 교통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그들의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다 — 신 27:6-7, 시 43:4-5.

## 신명기

### 메시지 1 (계속)

- C.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제단 위에서 희생 제물로 불태워진 제물들도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이루시고 만족시키시는 분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요구하시는 하나님 자신은 육체가 되어 오셔서 이처럼 요구를 이루시는 분이신 우리의 구속자와 대속자가 되셨다.
- D. 이 놀라운 광경은 우리가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복을 받는 것이 우리 자신 안에서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요구하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제물들이신 그리스도 자신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러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 체현되시고 그 영으로 실재화되신,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 자신이다 — 벰전 3:18, 엡 1:3, 갈 3:14과 각주 2.